

제 9회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_레오 스트라우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2020년 7월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이러한 견해를 <관념론 idealism>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관념론이 현실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선이 자기 자신의 것보다 존엄하다거나 또는 최선의 정치체제는 조국보다 더 높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유대적 전통에서 이러한 관계에 상응하는 것이 토라와 이스라엘의 관계이다.

마치 한국이 질료이고 자유민주주의가 형상인 것과 같다.
토라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국가의 관계이다.
이것은 국가 정치의 정통성이 신화에서 비롯된다는 점과도 연관이 있다.
국민들은 집단 무의식 속에서 선택을 해오기 때문.

고대 저술가들이 민주정을 열등한 정치체제로 거부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들이 민주정의 장점들에 대해서 눈을 감았던 것은 아니다. -중략- 플라톤은, 자신의 정치체제 열거방식을 헤시오도스Hesiod의 세계사 시대들과 병렬시킴으로써, 민주정이 가장 중요한 면에서 헤시오도스의 황금시대에 해당되는 최선의 정치체제에 상응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왜냐하면 민주정의 원리란 다름 아닌 자유이며, 민주정 아래에서는 모든 유형의 인간들, 특히 최선의 인간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선의 정치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민주정을 할 수 있다.
민주정을 해야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그러한 점을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철학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와 함께 중용적인 정치과정들과 융합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질서의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며, 그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정치질서는 오래된 가문들의 지배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고대의 저작들이 민주주의를 거부한 것은 인생의 목표, 곧 사회생활의 목표는 자유가 아니라 덕성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목표로서의 자유는 모호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것에 대한 자유뿐만 아니라 나쁜 것에 대한 자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는 선을 위한 수단 자유가 무조건적인 선은 아니다.
자유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유로워지면 그것은 재앙이 되기 때문
지선은 선과 자유의 완전한 일치겠지만 자유와 선의 관계는 질료와 형상의 관계다.

덕성은 정상적으로는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다시 말하여 성격 형성, 습관을 통해서만 나타나며, 이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여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여가란 또한 어느 정도의 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덕성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여가와 양립할 수 있는 종류의 부를 요구한다. 그런데 부에 관한 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찰한 바와 같이 언제나 소수의 잘사는 사람들과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며, 이러한 상황은 재화의 희소성 때문에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토지에서 벗어나 존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주정 혹은 다수의 통치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한 정부인 것이다.

재화의 희소성 때문에 빈부격차는 영원히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민주정 혹은 다수의 통치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한 정부인 것은 교육받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삶을 살도록 준비되어 있다. 인간은 본디 선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루소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개발하려는 압박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한 통치가 되어야만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러한 목표는 교육의 보편화에 의해서 이룩될 것이다.

덕성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어떤 것이 선인가”와 같은)

그러한 덕성은 교육을 필요로 한다.

교육되지 않은 이들에 의한 중우정치가 민주정을 위협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일반적인 학교에서 행해지는 훈련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보편화는 희소성의 경제가 풍요성의 경제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풍요성의 경제는 기술이 도덕과 정치적 통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견해와 고대의 견해 사이의 차이는 도덕 원칙의 차이나 정의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있지 않다.

산업기 이후로 민주주의가 꽃피웠다. 교육이 보편화되려면 사람들이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노동에서 해방되려면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의 비약적인 증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결과로 아이들이 노동에서 해방되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대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민주정의 전제조건이 만족되는 사회가 왔고,

우리는 풍요로운 자유와 과거보다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